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41호 현대불교

29

2011년 6월 22일(음 5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조금씩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끝없는 길을 걸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남): 저는 대구지원에서 왔는데 이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아서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이런 거를 뜻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읽을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 그냥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목요일마다 법형제법회라든가 또 다른 행사 때 스님 말씀을 듣고 또 책을 읽고, 특히 스님이 지으신 계승을 꼭으로 붙인 여러 선법가를 접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자성불이 있다는 그 말씀은 저한테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했을 뿐 아니라 생활에 큰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예전에는 월급이 좀 적으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금액이 좀 흡족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도 되지.' 또 세금을 많이 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돈을 벌어도 내가 번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아, 이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 선배, 후배, 직장동료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돈을 벌었구나.' 해서 주위 사람한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 큰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주인공에 맡기는 작업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려고 마음에 원(願)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해외연수에 대해 상당히 마음을 내고 원을 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진행이 돼 가지고 회사에서 제게 잠시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3개월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도 '아, 왜 이렇게 실천이 잘 되는 건가?' 하고 감탄이 되면서 스님의 선법가의 맛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연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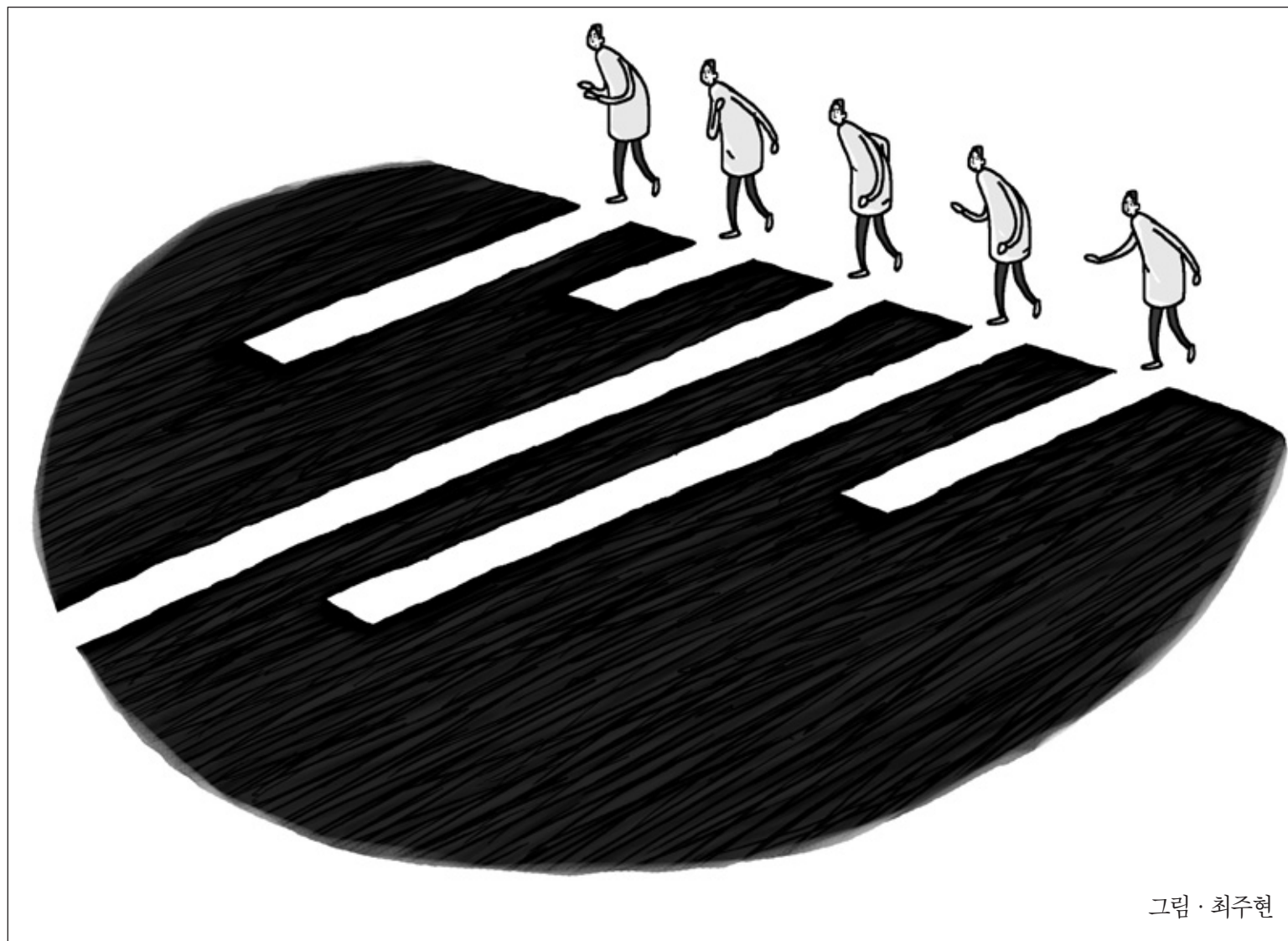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러가 있는 동안 비록 스님 말씀 들을 기회나 법회에 참석할 기회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또는 마음의 원을 내어서 항상 실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연수를 받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서 저 자신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을 내면서, 기복 신앙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지원장 스님께서도 기복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과연 진짜 자성불에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되게 해 달라고 기복으로써 원하고 막 자성불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큰스님: 이 원이라고 하면 언뜻 동근 것이 떠오르죠? 그래서 원심을 낸 거죠. 한마음이 된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같지만,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천문학이기도 하고, 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왜냐? 내가 그 몸속에 있는 의식과 모두 합쳐 한마음을 썼습니다. 한마음으로 원이라는 그 말이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 한마음을 썼는데, 한마음으로 내 가지고 보니까 바깥 경계도 한마음으로 되 돌아가더라 얘기죠. 안에서 한마음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할 땐 '원지에서 입자로 화해서 다 조절을 한다. 한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할 하는 겁니다. 이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는 겁니까? 이 내 마음속으로 하는 것은 비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찾는 게 비는 거고 기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공한테 찾는다는 것은 한마음으로 중심에 그 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을 세운 그 마음 한 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먼저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말을 해야 될 일, 요거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어야 될 일 등, 이렇게 각각 나가서 자기 소임을 완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축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구축하게 가지고 있던 얘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겁니다. 당신네한테 구축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통신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배깁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속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죽여 버려야겠다.' 이렇다면, 벌써 저쪽에서 '흥!' 하고 콧방귀 탁 끼고 '네가 날 죽여?' 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몰라도 본래 자기 속에서는 벌써 알고 '흥! 날 죽여?' 그리고 선 오히려 낫다. 그러고 몽둥이가 들어가죠. 그러는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자비스러우면, 또 그걸 알면서도 몽둥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오히려 실의에 되빠져 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올라오도록 자비를 베풀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실천에 옮겨 보면서, 실험을 해 가면서, 체험을 해 가면서 지꾸지꾸 끝없는 길을 걸어야죠. 어떤 사람은 몇 년이나 해야 되겠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몇 년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젠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선천적인 자기의 그 착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몇 알갱이나 살겠습니까? 요 사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건지느냐, 아예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한생각을 잘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를 건지고 자식을 건지고 세세생생 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똥을 누나, 잠을 자나, 밥을 먹을 때나 주인공 생각만 내면은 항상 거기다 놓는 작업을 안 하고는 아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내가 삼천 배를 올려라, 기도를 하라, 정성을 들여라, 또는 몇몇 일을 목욕제계를 하고 정성을 들여라, 이런 말 합니까?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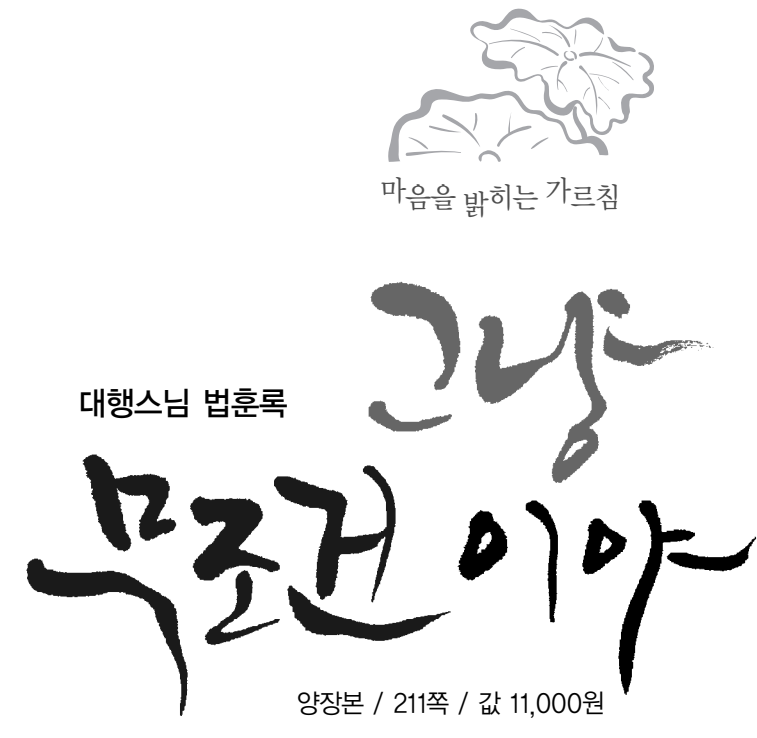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한생각 잘 내면 부처고 한생각 못 내면 중생이다

29면에서 계속

여러분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중생이니까 '한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다. 그러니 잘해 보라.' 이거죠.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것도 자생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할 줄도 안다. 즉 말하자면 자생중생에, 자생부처에, 자생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한생각과 자기 한생각의 움켜쥐림이 자생삼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기 무신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몸이 움켜쥐는 것이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생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생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불(佛)도 자기의 생명과 돌이 아니죠. 불이 생명이니가,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교(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머리 깎은 사람만 믿게끔 되는 게 불교가 아니죠. 그냥 진리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인 불(佛)과 한생각인 법(法)과 스님들인 승(僧), 즉 불법승이 다 한데 합쳐서 내 자생삼보와 돌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돌이 아니죠. 생명도 돌이 아니요, 몸도 돌이 아니요. 만약에 생각도 돌이 아니라 한다면, 즉 그냥 모두가 삼보에 귀의했다 한다면, 자생이다 뭐 부처님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법당에 와서 일장례(一頂禮)를 하든지, 삼장례(三頂禮)를 하든지, 칠장례(七頂禮)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몸과 같고, 내 마음도 부처님 법과 같고, 또 저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내 모습과 돌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 모습도 그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는 불상과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내 자신의 한데 합쳐서 나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이 아니죠. 그러니 항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죠. 부처님 형상을 무시하면은 자기 형상이 무시가 되는 거니까. 모두가 그렇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안 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랑스러운 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없다면 없는 거죠. 전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문제는 '너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모두 각자, 너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엿습니까?" 하나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번연히 이미 부처가 됐다

하면서 왜 부처를 깨닫지 못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 스님네든 스님네가 아니든 자기 그릇의 잣대에 대해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게 모자라게 대로 내가 등글게 그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크면 큰 대로 들어가 주고 아주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항상 동등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모자라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허! 저게 내가 모르고 살 때의 내 모습과 같구나.'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자랐을 때의 바로 그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겁니다. 자기이기 때문에, 전자의 모자랐던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예 자기 그릇에다가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선 '아휴, 저거는 그냥 천 리만리 모자라.' 하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모가 나죠. 그리고 외면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그 자동적인 오신통의 제일 중심에 숙명통이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숙명통의 컴퓨터에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입력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거기다가 또 맡기면 입력된 게 그냥 전체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새 물로 화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나씩 새 걸로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 안 해 본 분들은 이렇게 좋다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그거를 알면 자동적으로, 그 무너졌다는 빌딩에 들어가다가도 아마 튀어나왔을 겁니다. 하하하...

질문자(남) : 감사합니다.
큰스님 : 네, 그 소리 들으니까 믿음직하군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체험을 하고 가시니 말입니다.
질문자2(남) : 질문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다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 편히 앉아서 해 봐요.

질문자2(남) : 예, 큰스님께서서는 아쉬운 것 하나 없으면서 저희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희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모든 것을 놓고 한번 들어가기 되겠다. 다짐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 감사해요. 내가 어떤 때는 부처님 경전에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합니다.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해 놓는 것이 있으면 '안과 밖을 돌 아나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복만 애길 한다면 그게 모두 감응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면, 바로 내 자아궁처(自我宮處)에서 바깥과 안 세상을 돌 아나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중심, 자기 뿌리에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감사하게 맡기고 또 솔직하게 맡기고, 또 굴러서 맡기고 이리

정말 나를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 줘 보라.' 하고 탁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는 실패를 했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인 공!' 했는데, 그 순간에도 중생심으로써 분별심은 일어났겠지요. 하지만 또 해 보겠다는 각오로 스님 앞에 서서 한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좀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게끔 스님의 에너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큰스님 :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대를 알고, 또 원리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하죠.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이루어주는 생각을 합

은통 해매지, 아니, 입이 있습니까, 몸뚱이가 있습니까? 될 먹겠다고 조상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이죠. 생각을 거기에 버어내게 해 드려야죠. 그렇죠? 버어내지 못하면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먹고 사는라고 그냥 극마야 하니 상세계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린다고 형제들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더 냈으니 내가 더 냈으니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한다던,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서 그렇게 더 조상들을 용아 놓는 거죠, 용아 놔. '요 음식 많이 먹고, 살고 싸우고 죽고 사는 데에 또 태어나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붙들고 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하지 마세요. 율고불고, 돈 많이 들고 또 싸우고, 해 놓고 귀찮고 하기도 귀찮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조상들이 많은 집에는 1년에 몇 번씩 되니까요.

그러니 그러하지 말고 딱 한 조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증편 한 조각이면... 둥그런 거 하나를 표시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양 손을 서로 붙여 보이시고) 한 떡으로 해 놓는 겁니다.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가님들이 볼 때는 아주 큰 도량으로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끔요. 거기에 철보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러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이 더 잘될 수밖에요. 온갖 거를 다 차려 놓고 하는 집들은 오히려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렇지만, 그렇게 진짜로 믿고 하는 집들은 아마 고행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

하어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는 영원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인생이 어떻게 가야 삶의 보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아만이 내 몸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몸통 속에서 벗어난 이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고,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면 이 모든 공기통 속에서 또 벗어나고, 또 거기에서도 벗어나면 자유인이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터운데도 공부하는 것을 조금도 귀찮게 생각 마세요. '에이! 터운데 귀찮게 거기까지 갔다 왔어, 놀기나 할 걸.' 그러지 마시고, 하하하...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1995년 7월 2일 법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그릇의 잣대에 대해 상대방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게 모자라게 대로
내가 등글게 그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항상 동등하지 않겠습니까.

면 다 통신이 되죠. 사대로 다 통신이 돼요. 그러면 모자라는 건 채우고 또 너무 넘치는 거는 제거하면서 안과 밖이 다 잘 이끌어지죠.

누가 큰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 얼마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속에서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주 돈 벌기는 딱 잠깐데 허락을 안 하니깐 그만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기 회사가 아니고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몇 사람한테서 먹어치웠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자동적입니까? 우리는 어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믿을 데가 있죠?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 속에는 바로 공씨가 들어 있듯이, 공씨에 공씨가 붙어 있듯이, 여러분 몸속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 가고, 슬기롭게 이끌어 가고, 또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러죠.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3(남) :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태몽이 붙어아만이 새로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인공,

국내 최초, 불교계 최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선물!

Concise Buddhism Dictionary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명확하고 풍부하다.



불자 모두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불교와 관련된 교리·사상·역사·인물·문화·문헌 등 불교도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뽑았다.
- 단어의 개념 설명이 매우 간결·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사이즈가 작은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어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이 한 권만 있으면 중요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와 사상,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해결된다.
-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발전한다.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막상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질문하지 못합니다. 또 타인을 의식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오기도 전에 잊어버리기 일쑤!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리는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법보시는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니다.
●각 지역별 판매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x178mm/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